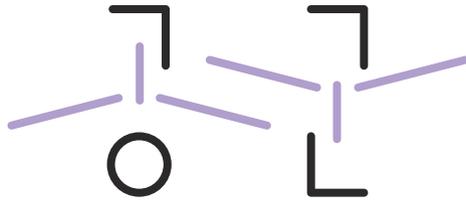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fzine.co.kr>



2020
12
5 1 0



Contents

04	기획특집	2020 공군 이모저모
08		2020 전투부대 순회 집중정신전력 교육 현장 들여다보기
12	특별기고	공중급유기(KC-330) 시그너스, 국민의 든든한 백조가 되어주길 (김주영 파이낸셜뉴스 정치부 기자)
14		정보화시대의 열매, 인공지능 (중령 조재석/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hr/>		
16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0화 신석초(申石艸) 시인 편
22	에어리스트	정보체계관리단 융복합개발팀 정보체계관리병
28	내 옆의 공군인	월간 「공군」 뒤표지 일러스트레이터 자토(하지나)
34	우리 부대는	공군기상단
38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2020년 공군 뉴스
디 자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일병 황원동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20년 12월 1일(통권 제510호)
발 행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과장 중령 최윤석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박란,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0110482)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44	시인의 책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46	명상을 말하다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48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칼 구스타프 용의 군인정신
50	트렌드가 보인다	다시, 캠핑의 시대
<hr/>		
52	공군인의 편지	오늘 밤에도 별을 헤며 (제2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상병 한상민)
53	책읽는 공군	『백년의 마라톤』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중령 조호성)
54	생각하는 그림	내 인생의 개척자는 나
56	기준의 기준	‘선풍포’
58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59	편집실에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 공군 이모저모



01.

국민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할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선 공군 장병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1억 4,970만원을 모았습니다. 모금액은 3월 13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에 전달돼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의 물품 구매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02



02.

3,000m 상공서 펼친 코로나19 극복 국민 응원

3월 16일, 임무 중인 공군 FA-50 전투기에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가 화제가 됐죠. 두 대의 전투기 후방 석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03.

부대 곳곳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360도 모든 방향을 촬영하는 광학카메라로 활주로를 원격 감시하고, 이·착륙 항공기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스마트 관제탑. 조종석과 외부 환경을 가상현실로 구현이 가능한 VR 비행교육훈련체계. 인원·물자 수송과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체계! 이 모든 것이 공군 부대에서 가능하다? 지난 6월 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된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체계 시연 및 점검 행사’에서 선보인 우리 공군의 신기술입니다.



04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 적용 안내

공군 병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됩니다

· '20. 3. 9.(월)에 입영한 병 81기부터 21개월이 적용되며, 이전 기수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 797기 ~ 병 810기 순차적으로 단축적용	병 811기 ~ 21개월 적용
-------------------------------	---------------------

· 21개월 적용 시 계급별 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병장 복무기간이 8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줄어듭니다.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7개월
-----------	-----------	-----------	-----------

· 공군 병 지원방법 : 병우청 홈페이지(www.mma.go.kr)

대한민국공군



04.

공군병 21개월 시대의 개막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와 공군 입영 대상자들이 환호할 소식이지요. 6월 2일부터 공군 병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되었는데요. 공군은 복무기간은 줄었지만, 전투력은 향상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과 전투 임무 중심의 인력 배치 등에 더욱 신경 쓸 계획입니다.

05.

시그너스(KC-330), 6·25전쟁 국군 전사자를 모시다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의 첫 해외 임무는? 바로 6·25전쟁 국군 전사자 147구의 유해 송환 임무입니다. 6월 24일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한 시그너스(KC-330)가 KADIZ에 진입하자, 공군 전투기 6대가 엄호비행에 나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05



(국방일보 사진 제공)

06.

한국 공군의 뿌리, 한인 비행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7월 14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 10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920년 한인비행학교 개교 당시 촬영된 역사사진을 기반으로 스탠더드 J-1 훈련기 1대와 학생비행사 10명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하네요. 공군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제막식에는 6·25전쟁 출격 조종사, 노백린 장군과 박희성 참위 유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08.

공군 픽토그램

공군의 모든 것이 픽토그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단순하게 표현한 디자인 브랜드 '공군 픽토그램'을 10월 5일, 공식 블로그 '공감(www.afplay.kr)'에 공개하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는데요. 항공기·의복·무기·계급 등 공군과 관련된 요소들은 물론 날씨·스포츠 등 일상요소들까지 총 26개의 카테고리, 430여 개의 픽토그램을 제작했습니다.

07.

언제나 국민의 곁에!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가 대한민국을 덮쳤었죠. 쏟아지는 물 폭탄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주민들을 돕고자 공군이 나섰습니다. 공군 각급부대에서 가용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이 부르는 곳에는 언제나 공군이 있겠습니다.



09



09.

전투기가 서울 상공에 떴다?

10월 19일,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를 앞두고 사전 연습비행을 실시했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T-50B 항공기가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10



10.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눈!

11월 3일, 공군의 13번째 비행단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공군 제39정찰비행단.

미래전에 대비한 공군의 핵심 전략부대가 출범하였는데요. RF-16 등 기존정찰자산들과 현재 국산 기술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포함해 총 5개 기종의 항공 감시정찰 전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F](#)





2020 전투부대 순회 집중정신전력 교육 현장 들여다보기

공군은 비행단, 방공유도탄부대, 방공관제부대 등 공군 전투력의 근간을 이루는 창끝부대의 장병들을 위해 매년 전투부대 집중정신전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순회교육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9월 21일(월)부터 12월까지 공군 전 전투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장병, 강사들의 이야기와 비대면 수업 현장까지, 교육 현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6·25전쟁을 통해 보는 공군의 발전사’를 주제로 자긍심 UP! 정신전력 UP!

공군에서 매년 진행하는 집중정신전력 순회교육은 장병들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함양과 공군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 한다. 특별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을 통해 보는 공군의 발전사’를 주제로 연극 콘셉트의 스토리텔링 교육을 진행했다. 크게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항공전략의 변화’, ‘6·25전쟁 속 대한민국 공군의 활약상’에 대한 강연과 ‘문화공연’ 순으로 2시간 가량 운영되었다. 특히, 장병들이 자주 듣는 가요를 개사하여 공군 역사 속 주요 전투와 인물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등 교육 전반에 재미를 더했다는 평이다. 실제 교육을 받은 장병들과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군악대 교육 현장

AF. ‘6·25전쟁을 통해 보는 공군의 발전사’ 주제로 교육을 받아보니 어떨까요?

상병 김창희 (8983부대)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작전이었는데, 우리 공군이 한국전쟁 중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걸 이번 교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배 전우들의 용감함을 떠올리며 지금의 제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강사분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던 상황을 가정하여 연기를 펼쳐 주셔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사분들이 주제별로 교육 내용이 담긴 노래를 직접 불러

주셔서 2시간 동안,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교육받으며 들은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게 되네요.

하사 백상현 (8948부대) 지금까지 받아본 정신전력 교육과 달리, 뮤지컬과 연극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형식이라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공군과 6·25전쟁의 역사가 강의의 주 내용이라 조금은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치 뮤지컬을 보듯 몰입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많은 인원이 볼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정신전력교육 동시에 잡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사와 교육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대 수강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되었다. 또 교육생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생 간 거리 유지를 위한 좌석 배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신전력교육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10월 13일(화) 제19전투비행단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신전력교육을 안전하게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대면 원격 시범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원격교육은 부대 밖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인터넷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대로 송출하고, 장병들이 프로젝터를 통해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9전투비행단 원격 교육 현장



AF 원격교육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박지오 강사 비대면 교육은 함께 만나 소통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죠. 접속하신 분들의 이름이라도 알고 들어가려 노력합니다. 모니터 너머라고 해서 소통이 단절되면 안 되니까요.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원격 프로그램을 테스트했습니다. 시중에 참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또한,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보안 문제도 중요하게 체크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대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음악을 전달하기엔 그 기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매일같이 낙원상가에 가서 어떤 장비가 가장 적합할지 지독하게 테스트했었어요. 사장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나 할까요. 비대면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비대면 교육 퀄리티가 높아지지요. 양질의 교육을 위해 많은 분이 분석하고, 탐구하고, 실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F 실제로 원격교육을 진행해 보니 어떤가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최한결 대위(진) (정신전력교육담당) 처음 시도해보는 교육방식이라 원활히 진행될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병들이 새로운 교육방식에 호기심을 느낀 덕분에 원활하게 비대면 교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강사와 교육생 사이에 소통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대면 교육 때에 느꼈던 음악극의 생동감과 강사들의 뛰어난 가창력이 완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까웠습니다. 그 외에 기술적인 한계로 생기는 스튜디오와 교육장 사이의 지연시간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망 문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AF**



공중급유기(KC-330) 시그너스, 국민의 든든한 백조가 되어주길



캐럴에 따뜻한 핫초코 한 잔 곁들이기 좋은 때다.

어김없이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언젠가는 하루하루가 쉽기만 했던가 싶다가도, 특히 올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려웠다. 눈이 새카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서 있는 부모의 모습이, 헛기침이나 재채기 한 번에도 따가운 눈빛을 쏘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우리 모습이 한 편으로는 서글펐다. 영화에서 보면 이럴 때 아이언맨 같은 난세의 영웅이 ‘짜잔’하고 등장해서 어지러운 일들을 말끔히 정리해주던데, 현실에도 그런 영웅이 나타났으면 싶다가도 공상이 끝나면 이내 힘이 빠지곤 했다.

영화 속 영웅처럼 지리한 상황을 단숨에 해결하진 못했지만,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힘을 보탠 존재들이 있다. 올해 해외수송에 첫 데뷔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

기(KC-330) 시그너스도 그렇다. ‘백조자리’라는 뜻의 시그너스는 공중급유를 위해 전투기와 대열을 맞춰 비행하는 모습이 백조무리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졌다고 한다. 공군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4대의 공중급유기를 들여왔다. 주 임무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 등에 공중급유를 해 공군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것이지만, 유사시 재외국민 구조와 해외 파병부대의 발이 돼주기도 한다.

난세에 등장한 시그너스의 첫 번째 해외수송 임무는 전쟁영웅 모셔오기였다. 지난 6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국 하와이에서 국군전사자 147구의 유해가 공중급유기에 실려 조국으로 돌아왔다. 인상적이었던 건 유해가 화물칸이 아닌, 급유기 좌석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안치된 장면이었다. 그렇게 전쟁영웅들은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10시간을 비행해 조국 땅을 밟았다. 곧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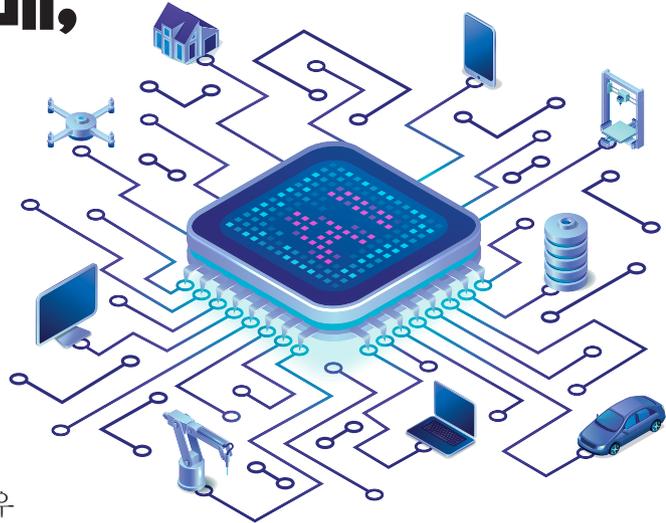
6월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를 공중급유기에 싣고 있다. (국방일보 사진 제공)

로 이어진 임무는 파병부대 장병 수송이었다. 지난 6월 말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해외 파병부대 최초로 공중급유기로 교대했다. 그간 파병부대 수송은 전세기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전세기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아크부대 17진 장병들과 물자를 싣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시그너스는 약 7,000km를 날아 UAE 아부다비 군 공항에 도착했다. 임무를 마친 16진 장병들도 곧바로 17진이 타고 온 공중급유기에 그대로 타고 와 안전하게 교대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에 발이 묶인 재외국민을 이송하는데도 톡톡히 한몫 했다. 지난 7월 이라크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위협적이었다. 이때 시그너스는 또 한 번 날개를 펼쳤다. 우리 국민 290여 명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급유기 2대가 이라크 바그다드로 급파됐다. 민항기로는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급유기로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당시 정부는 급유기에 방역 마스크 5만 장도 함께 실어가 이라크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돌아보니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는 올해 꽤 화려한 날갯짓을 했다. 답답했던 마음처럼 꽉 막혀있던 하늘길을 뚫고, 묵묵히 여러 임무를 성공해 낸 것이다. 눈을 감고도 70년을 그리워했던 고국 땅을 밟게 된 이들의 마음, 역병으로 이역만리에 발이 묶여있다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의 마음. 시그너스의 300개 좌석에는 수많은 이들이 느꼈던 벅차고 고마운 마음들이 그득그득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그너스가 국민의 든든한 백조로 활약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남은 달력 한 장을 넘기면 우리를 괴롭혔던 고약한 것들도 말끔히 넘어가길 바란다. **AF**

정보화시대의 열매, 인공지능



용어와 개념의 혼돈 시대다. 다보스포럼의 의장, 클라우드 슈밥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의 도래를 예견하고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AlphaGo의 대국은 인공지능의 존재를 크게 알리게 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사 용어들이 넘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정보화에 관련된 용어는 아직도 건재하다. 안정적으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용어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의가 다양하고 인터스트리 4.0(독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미국), 소사어티 5.0(일본) 등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필요한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다. 핵심 개념은 부여된 지능(인공지능)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활용에 연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지식을 다루는 능력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며 적용대상은 정보체계 등의 기계이다. 기계는 스스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SW를 통해 기계의 능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대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인공지능의 활용 목적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활용 목적은 후속으로 따라오는 알고리즘 개발, 빅데이터 선정 및 가공, 활용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업무분석**이다. 업무분석은 물질의 단위인 분자처럼, 형태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를 본연의 특성을 가진 최소 단위로 잘게 조각 내기 위해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도대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계에 인위적인 지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는 인간처럼 업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업무를 조각 내고 SW로 변환하여 기계에 전달하고 처리방법을 정한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판단한다. 업무분석은 단위업무를 SW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각 단위업무의 산출물인 데이터는 뒤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재료로 사용된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고 빅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효용은 미리 학습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주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 한 품종의 고양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장의 사진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단,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당 고양이를 식별해 낸다. 흔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요리에 비유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요리 도구, 인공지능은 요리법(Recipe), 빅데이터를 요리재료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발된 알고리즘은 단위업무의 데이터로 학습하고 성능이 검증되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산을 통해서 수집되고 처리, 유통되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서로 분리하기 어렵다.

마지막은 ‘인공지능 윤리’로 인공지능으로 부여되는 업무의 자율성에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적용 결과에는 윤리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적절한 결과가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진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우회전을 하면 B가 부상을 입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문제가 최소화 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 자율성을 가진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윤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다. 인공지능 윤리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윤리, 안보전략, 전쟁법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과 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기술은 문화의 연장이다. 즉, 기술 속에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정보화시대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며 수단이다. 즉 정보화시대의 토양과 기후에서 자란 나무와 열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화시대의 밑그림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별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 가는 노력이다. ^{AF}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0화 신석초(申石艸) 시인 편



『미사일』 제22호(1963년)
표지 및 시 원본

매화에 부치는 노래

매화는 오로지
높은 제 뜻으로
차디 찬 눈속에 핀다.

매화는 온갖
잡 꽃이 싫어
봄 일지기 핀다.

매화는 아름다운
궁지로 하여
시인이 가꾸는 뜰에서 핀다.

신석초 시인은 1950년대 후반의 『코메트』, 1960년대 초반의 『미사일』에 시와 수필을 발표했다. 그가 공군지에 작품을 싣던 시기는 시인 개인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공군지와 첫 인연을 맺은 때는 1958년이었는데 이때 시인은 50세였고 『한국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였다. 또한 이 즈음은 유명한 제2시집 「바라춤」(1959년)이 발간되던 시기와 겹쳐 있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신석초가 공군지에 수록한 작품은 한편 한편이 아름답고 중요하다.

그가 공군지에 발표한 시로는 「하늘을 간다」(『코메트』 제35호, 1958년), 「남한산성」(『미사일』 제15호, 1962년), 「매화에 부치는 노래」(『미사일』 제22호, 1963년)의 3편이 있다. 석초가 본래 다작하는 시인은 아니기 때문에 3편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카루스의 몽상」(『코메트』 제40호, 1959년)이라는 수필 1편을 공군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시 「매화에 부치는 노래」는 『신석초 문학전집』(웅성, 1985년)에도 수록되지 않은 미발굴작이다. 나아가 신석초가 공군지에 실은 수필 「이카루스의 몽상」 역시 신석초의 전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군지에 수록한 작품 4편 가운데 무려 2편이 새롭게 소개될 자료라는 점이 몹시 흥미롭다.



『코메트』 제40호(1959년)
표지 및 수필 원본

만약 우주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신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 뒤의 그들과 우리 지상인과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밤하늘에 떠서 저렇게 밝고도 아름다운 중추의 달이 그때에도 그렇게 느껴질까. 모든 일은 아직 미지의 일이다. 과학 시대에 있어 문학의 문제가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소이도 이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원망(願望)하는 것은 곧 인류의 몽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사람의 몽상에는 끝이 없다. 이카루스의 꿈을 지금도 오히려 꿈꾸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무슨 꿈을 또 꾸게 될는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수필 「이카루스의 몽상」 중에서



노년의 신석초 시인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 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靑山 깊은 절에 울어 끊인
종소리는 하마 이숫도 하여이다.
경경히 밝은 달은
빈 절을 덧없이 비초이고,
뒤안 이숫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杜鵑조차
저리 슬피 우는다.
아아, 어이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涅槃)을
나는 꿈꾸었노라

- 대표시 「바라춤」 부분

신석초(申石艸) 시인(본명 應植, 1909-1975)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조선 후기 문인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를 배출한 집안으로서, 당시 서천 지역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명문가였다. 지역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유교적인 가풍과 지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러우며, 고택이 매우 아름다운 집안의 장남. 그가 바로 시인 신석초였던 것이다. 시인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스승을 모셔 사서삼경, 도학, 이학, 문장, 시경 등을 익혔다. 한학 교육을 정식으로, 제대로 받은 거의 마지막 세대가 바로 신석초의 세대가 되겠다. 신석초 하면 「바라춤」이나 「서라벌 단장」과 같이 전통적이고 사색적인 작품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이런 작품들을 창작하게 된 데에는 유년 시절 받았던 한학 교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군지에 수록된 「매화에 부치는 노래」 역시 전통적 문인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속세에 지지 않는 선비의 기풍을 상징하는 소재다. 특히나 매화는 신석초가 가장 사랑한 꽃이었다. 신석초 시에는 유독 꽃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매화에 관한 시가 제법 많다. 「매우(梅雨)」, 「매화송」, 「매화의 장」, 「매화 한 가지」 등 매화를 논하는 작품들은 대개 선비의 기풍을 담고 있다. 시인이 1960년대 발표한 시들은 대개 시집 『폭풍의 노래』에 주로 수록되었는데 「매화에 부치는 노래」는 시집에도, 전집에도 누락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전통 문화와 신식 근대 문화를 동시에 접했다는 점은 신석초 이해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준다. 분명 명문가의 장남이고 한학 교육을 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양의 전통 유산에 대해서만 잘 알았던 것은 아니다. 신석초는 서양 문명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공부했다. 다시 말해 신석초의 시세계에서는 동양적 지성과 서양적 지성의 종합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는 이렇게 이질적인 성격이 공존하는 시인을 찾기 어렵다.



동경유학시절(1933년)
시인은 1931-34년 사이 일본
법정대학 철학과로 유학을 떠났다.
(서천 문화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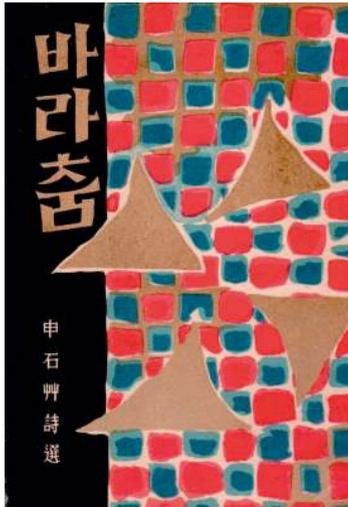


삼남매가 함께한 사진.
왼쪽 아래 흰 양복을
입은 사람이 시인.
(서천 문화원 제공)

석초의 부친 역시 선비의 품격과 개화의 지식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고 한다. 부친의 영향을 받아 신석초는 일본 유학을 가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프랑스 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았다. 그의 불어 실력 역시 수준급으로 원서를 직접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신석초의 시 중에는 ‘처용’ 등이 등장하는 지극히 동양적인 작품도 있고, 반대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서양 신화의 인물이 등장하는 서양적인 작품도 발견된다. 거대한 동양 서양의 문명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시인인 셈이다.

과연 석초는 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까. 기질적으로 신석초에게는 선비 정신이 깔려 있다. 조선 시대 선비 계층은 탐구하고, 정진하고, 본질을 찾고 수호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신석초는 근대 문학계의 선비라고나 할까. 그 역시 항상 진지하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고민했다. 시인은 “문학의 위대한 유산은 영원히 살고 항상 새로운 시대에 숨쉬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의 지적이고 시대적인 역할에 고민하던 시인은 언어, 기교, 수식, 이미지를 부정하고 시인의 ‘사유’를 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신석초의 시는 지성적이고 다소 난해하기까지 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신석초의 생애에서는 이육사(1904-1944)와의 우정을 빼놓을 수 없다. 신석초와 이육사는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명문가의 자손이었다는 점이다. 석초는 석북 신광수의 후손, 이육사는 퇴계 이황의 후손이었다. 그 둘은 위당 정인보의 집에서 처음 만났고, 만나자마자 십수 년을 함께 한 듯 친구가 되었다. 석초와 육사가 각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청운의 꿈을 펼칠 때였다. 그들은 만나지 않는 날이 만나는 날보다 더 적었고, 사람들은 육사에게 석초의 안부를 물었다. 함께 문학을 논했고, 잡지를 만들었으며, 위당 정인보를 돕고, 조국의 안위를 근심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육사는 고초를 겪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신석초는 죽을 때까지 친구를 잊지 않았던 것 같다. 육사에 대한 회고담을 종종 발표했고 1968년 5월 안동에 육사 시비를 세우고 와서는 「육사를 생각한다」는 시를 썼는데 이 내용이 절절하기 짝이 없다.



화백 김환기가 그린 신석초 제2시집 『바라춤』(1959)의 표지 그림.
김환기가 시집 표지를 그리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화백 천경자가 그린 신석초 제2시집 『바라춤』의 속표지 그림. 꼬리를 물고 있는 뱀 그림이 역동적이다.

신석초의 가장 유명한 시집은 제2시집인 『바라춤』이다. 『코메트』에 발표되었던 「하늘을 간다」 역시 이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하늘을 간다」에는 ‘서정주의 「학」에 부쳐’라는 부제가 적혀 있어 석초와 서정주의 사이를 짐작하게 한다. 신석초와 서정주는 1930년대 「자오선」이라는 문학잡지의 동인으로 만나 함께 활동하던 사이이다. 1950년대에도 이들의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시집 『바라춤』(통문관, 1959년)은 수록된 작품들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장정면에서도 특별한 시집이다. 이 시집의 진가가 어느 정도이나 하면 만해 문학관에서는 귀중본으로 유리관 안에 진열되어 있고, 장서가들이 옥션에서 찾아다닐 정도이다. 대중들에게 초판 표지가 아름답기로는 운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55년)가 알려졌는데 아름답기로는 신석초의 시집 『바라춤』 역시 절대 밀리지 않을 정도다. 이 시집은 표지를 김환기 화백이 그렸고, 속지 표지는 천경자 화백이 그렸다. 시집의 서문을 보면 이들이 장정을 도와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이 적혀 있다. (이 귀한 자료는 신석초 시인의 장조카이신 신홍순 선생께서 보관하고 계시다 필자에게 제공해 주셨다.) 시집 표지를 넘기면 속 표지에 천경자의 특별한 뱀 그림이 있다. 천경자 시인은 꽃, 뱀, 여인을 주로 그렸던 시인이어서 이 그림 역시 화백의 시그니처 모티브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뱀’은 신석초의 초기 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소재다. 시 「바라춤」에는 “祕密한 뱀이 꿈어리는 형역”이라는 시구가 있고, 시 「유파리노스 頌歌」에는 “비단 그물과 금 고리가 서로/ 꼬리를 물고 물구나무서는/ 뱀의 황금 팔찌”라는 구절이 있다. 천경자의 그림과 함께 이 시구들을 읽으면 시화가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석초의 생애, 그의 시집, 문학, 시인의 정신적 주류 등등 어느 한 부분도 고아한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 신석초는 어느 문학 진영에도 소속되지도 않고 혼자 외로이 지적인 문학 세계를 밀고 나간 시인이다. 그의 뜻을 기리고 신석초를 기념하기 위해 서천 문화원에서는 2016년부터 ‘신석초 문학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신석초 문학상 공모전에는 “우주를 떠도는 나그네, ‘바라춤’의 신석초”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다. 이 표현대로 신석초는 아직도 지적이고 시적인 우주를 떠돌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 글이 공군지에 수록된 신석초의 흔적과 함께 그의 향기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지를 바란다. AF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안내

공모기간 매월 10일까지

입선혜택 공군인의 편지
책 읽는 공군 지면 기사작

포상금 5만원 (개인 계좌입금), 편지 수신인에게 공군지와 홍보물품 배송
포상금 5만원 (개인 계좌입금)

마음의 소리 기사작

홍보물품 **기LO**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공군지 홍보 물품) 등

공군인의 편지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MOA5819@AF.MIL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8급 김모아)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편지) 명시할 것
예: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바탕체 10PT
줄간격 180%
공백포함 1250자 이내
(편지 수신인 성함, 주소, 연락처 기재)

책 읽는 공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 소개 / 서평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MOA5819@AF.MIL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8급 김모아)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서평) 명시할 것
예: (서평)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바탕체 10PT
줄간격 180%
공백포함 1400자 이내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응모방법

인터넷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에서 업로드
(WWW.AFZINE.CO.KR)

양식

250자 내외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의 전문가들

Airlist+

#8 공본직할 정보체계관리단 융복합개발팀 정보체계관리병



Air-Force + Specialist

공군의 전문 특기병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군 생활을 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Airlist를 통해 만나보세요.

공군의 실리콘밸리! 4차 산업혁명 IT 신기술을 연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정보체계관리단 융복합개발팀이다. 공군의 정보체계관리특기(이하 '정보체계관리병')는 다양한 전산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체계를 지원, 관리하여 공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 그중 정보체계관리단 융복합개발팀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신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공군에서 IT 신기술을 다루는 장병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정보체계관리병 신기연 병장, 이경빈 병장, 송창근 상병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F 정보체계관리병이 어떤 일을 하는 특기인지 소개해주세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개발뿐만 아니라 전산 장비 관리, 암호 모듈 관리 등 맡아”

기연 안녕하세요, 공본직할 정보체계관리단 융복합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신기연입니다. 정보체계관리병은 전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는 특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개발뿐만 아니라 전산 장비 관리, 암호 모듈 관리, 정보 보호 등 아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중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는 소속된 팀마다 다릅니다. 융복합개발팀은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체계 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있던 웹,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고 체계를 개발하는 업무, 체계의 문의 사항을 처리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융복합개발팀은 여러 작은 팀들로 나뉘는데, 저는 3D 팀에서 VR 기반 비행교육 훈련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작성병이라는 이름 그대로 공군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체계를 개발합니다. 체계가 완성되어 배포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용자의 문의를 받고 유지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융복합개발팀은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체계 개발을 주 업무로 맡아”

AF 정보체계관리병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빈 군 복무 중에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저는 각 군 소프트웨어 개발병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군 정보체계관리단 체계개발대 융복합개발팀이라는 공군 내 부대를 알게 되었는데, 다른 부대들과는 달리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3D 개발, 안드로이드와 IOS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제 실무경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융복합개발팀에 가려고 했습니다.

기연 입대하기 전, 학교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보체계관리병이 사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전산 업무와 다르지 않은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비슷한 전공을 가진 선·후임,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들어 큰 가치를 느꼈습니다. 이에 입대를 망설이지 않고 정보체계관리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AF 선발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따로 공부”

경빈 전문기술병 중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 취득과 헌혈 점수, 봉사 점수 획득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 결과 면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큰 난관 없이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군은 훈련소 성적으로 자대를 정하기 때문에 달리기,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등 체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헬스장에서 체력을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기연 저는 컴퓨터 전공과 관련된 대학을 졸업한 후였고, 토익 영어 성적도 미리 확보해뒀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로 공부했었습니다. 정보처리기사와 관련된 공부는 후에 보게 될 자대 배속 시험과 조금 연관이 있으니,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이 결정된 후, 웹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웹 개발과 관련된 기초적인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AF 준비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사회에서 했던 공부가 군대 내에서 진행 되는 업무와는 많이 다르지 않아”

기연 준비 과정에서 공부했던 여러 공부가 실제로 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에서 했던 공부가 군대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와는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랐으며, 더 깊이 공부해왔으면 업무 진행에 더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연 병장

AF 입대 후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훈련단의 성적에 따라, 정보통신학교에서 전산정비반과 정보체계반 선택”

참근 정보통신학교에서는 자신의 희망과 기훈단 성적에 따라 전산정비반과 정보체계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정보체계반이라서 정보 보호, 유닉스 기초, HTML 기초, SQL 기초 등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전공자라면 내용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AF 정보체계관리병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개발 업무 특성상 업무를 패턴화할 수 없어”

참근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하는 프로그래밍은 콘솔에서 돌아가는 작은 프로젝트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구현한 수많은 코드, 그래픽 처리,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충돌 및 에러, 계속해서 추가되고 변경되는 목표들 등 난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런 실무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개발 업무 특성상 업무를 패턴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할지, 버그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며, 고민한다고 그날 답이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힘들게 만든 앱이나 웹을 공군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큰 성취감 얻어”

경빈 공군에서 복무 중이라면 매일 사용하거나 들어봤을 체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만든 앱이나 웹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F 복무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공군 LTE 모바일 앱, 웹, 인공지능, 생체인증(Biometrics), VR 비행교육 훈련체계 같은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경빈 먼저 저희 융복합개발팀은 공군 인트라넷 체계 일부, 공군 LTE 모바일 앱, 웹, 인공지능, 생체인증(Biometrics), VR 기기를 이용한 비행교육 훈련체계 같은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공군에서 사용하는 앱에서 발견된 버그를 고치거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대에서 새로운 앱을 요청하시면 새로이 개발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행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S 현황확인, 주변 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연 저는 융복합개발팀 안에서 인공지능팀으로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체계 개발은 올해부터 실행하는 단계로, 초기 모델로 공군 규정 검색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검색 체계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챗봇을 통해 공군 규정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때 대답해주는 프로토타입 비지도 학습 QA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창근 VR 기반 비행교육 훈련체계라는 체계가 있는데, 이름대로 VR을 이용하여 안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시뮬레이션



을 통해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요구받은 새 기능을 구현하고, 버그를 제거하고,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다른 기기에 옮겨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VR을 다루기 위해 게임 엔진을 사용하고 비행기를 다루다 보면 가끔 게임 개발자로 비행기 조종 게임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AF 실제로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본인의 기대에 부합했나요?

기연 첫 번째로, 현장에 투입되어 실전 전산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개발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여,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기술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부터 웹 개발에 사용되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백엔드 프레임워크,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앱 개발기술 등 아주 다양한 기술들을 다룬다는 것이 다방면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창근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특기를 정했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 정말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게임 개발 동아리에서 활동했는데, 여기서도 게임 개발 도구를 사용하니 적응도 빠르고 익숙해서 좋았습니다. 개발을 좋아하고, 이곳에서 하는 개발이 사회와



는 조금 다르지만,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기도 하니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트라넷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검색한 코드를 일일이 보고 쳐야 하기도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를 받으려면 요청을 올리고 승인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트라넷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할 때가 많아”

AF 복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경빈 앱 개발 중, 다른 요소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앱 정보 저장소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저장소는 다른 팀에서도 사용하는 공용 저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프로그램을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저장소가 먹통이 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복구되었으나 제가 신중히 점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사무실로 전입해 온 지 일주일 만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던 병장이 말년 휴가를 떠나가게 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신병을 구하던 중, 제가 유일하게 다룰 줄 알아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전 업무 경험도 적고, 실력도 초보자였기 때문에 많은 야근을 하기도 했

습니다. 전입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여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고, 제가 만든 체계가 인터넷 사이트에 보이는 순간 그때의 행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AF 일과 후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유명 개발자들의 글, 발표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찾아봐”

창근 개발 관련 글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유명 개발자들의 글 또는 발표나 프로그래밍 언어나 패러다임 같은 걸 찾아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꼭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의 철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에 가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웹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언어도 늘어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은 힘들어도 책에 나온 내용을 따라해보기에는 좋습니다.

경빈 전 컴퓨터공학 이론공부와 운동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같은 부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체 운영 체제 제작에 관심이 많아 인가받은 태블릿으로 생활관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에는 수학과 관련된 이론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학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AF 전역하기 전, 그리고 전역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나중에 후임에게 프로젝트를 물려줬을 때,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경빈 현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완벽히 완성하고 싶습니다. 전 코딩 스타일의 통일과 간단함을 중요시하는 성격인데, 나중에 후임에게 물려줬을 때를 대비하여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전역 후에는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배워 아름

다운 그래픽에 신선한 플레이 경험이 가능한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설명서를 사서 읽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얻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은,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은 것”

기연 입대 전에는 취미라는 것도 없고, 저 스스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 생활 중 얻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은, 일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역 후에는 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델들이 좋은 결과를 준다면 논문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공군에서 처음 도입한 인공지능이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괜찮은 연구 성과를 남겨 후에 들어올 후임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AF 정보체계관리병에 지원하게 될 본인의 후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보다 방법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

창근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팀마다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워오는 것보다는 방법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객체지향, 절차지향 등 패러다임 공부나,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에 실무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이므로 프로그램을 진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저희 팀에서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도전하셔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세요!”

기연 개발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입대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군 정보체계관리병으로 들어온다면, 개발 업무를 할 기회가 있을뿐더러 충분히 자기계발 시간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군 생활은 저에게 있어 크나큰 전환점이었고, 막막했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신 있게 도전하셔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세요! AF

정보체계관리특기 모집안내

지원 자격

자격 요건 | 관련 직종 자격, 면허 소지자 또는 전공자

전체배점

구분	1차 전형	2차 전형 (1차 점수 + 면접점수)		
		1차 점수	면접 점수	계
배점	115	115	25	140

배점상세

1차 전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자격면허50 + 전공40 + 출결10 + 가산점15)

2차 전형 | 1차 점수 + 면접점수의 종합점수 순(順)
면접 평가요소 : 대인관계역량, 의지/정신력, 면접태도, 학교생활, 표현력 (각 5점 / 총 25점)
면접평가결과 실격처리 : 5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1점을 받거나 총 점수 10점 미만

모집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21화 프리랜서 작가 월간「공군」뒤표지 일러스트레이터 자토(하지나)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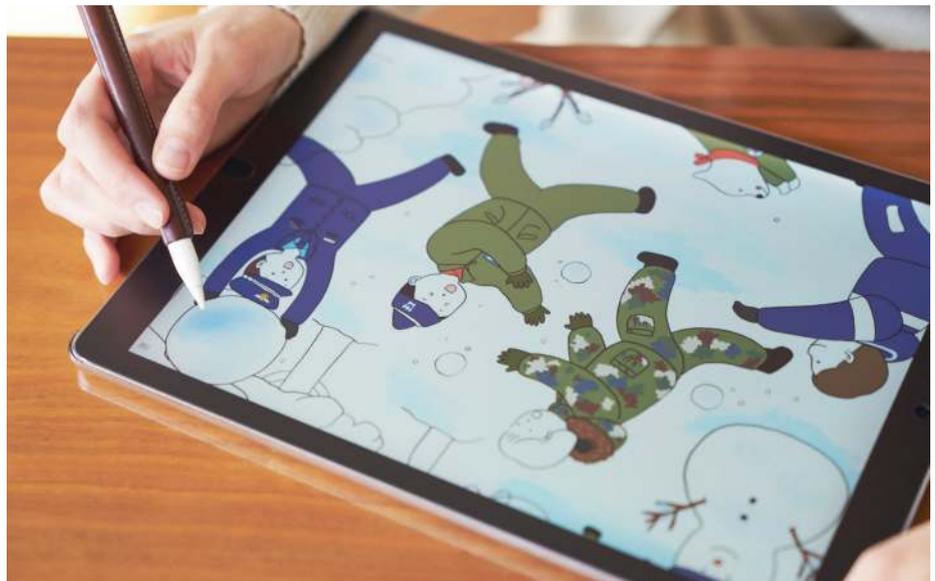
“매달 팬아트를 그리는 팬의 기분으로”

월간 『공군』을 처음 보는 사람 중 대부분은 표지의 세련됨에 놀란다. ‘정말 군(軍)에서 만드는 월간지가 맞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월간 『공군』 표지 디자인의 진정한 놀라움은 뒤에 있다. 아기가 자기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일러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3년째 공군지 뒷면에서 귀여움을 뽐내는 이 일러스트는 바로 작가 ‘자토’의 작품이다. 처음 공군으로부터 그림 요청을 받았을 땐 ‘정말 내 그림을 보고 연락을 준 게 맞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매달 팬아트를 그리는 팬의 기분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자토 작가를 만났다.

카지노 행사 기획자에서 전업 작가로

저는 미술 비전공자예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획팀으로 입사해 5년 정도 근무했어요. 주로 카지노에서 열리는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낙서하는 걸 좋아해서 교과서에 맨날 낙서하고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보고서를 쓸 때마다 그래프의 수치보다 색깔에 더 신경 쓰는 저를 발견하곤 했어요.

하는 일이 저와 맞질 않다 보니 다른 걸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은 오래 할 수 없을 거 같았거든요.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발견했어요. 연습장에 만화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때는 플랫폼이 초창기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적어서 제가 주목을 받았어요. 운이 좋았죠. 플랫폼 메인에 뜨고, 댓글도 달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제의가 오더라고요. ‘기회가 생겼으니 일단 1년 정도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어요.



12월호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

5년의 시간, 4권의 책

5년 동안 총 4권의 책을 펴냈어요 세 권의 그림 에세이 책과 한 권의 디지털 드로잉 관련 실용서예요. 책을 펴내는 동안 공군지 뒤표지 일러스트를 포함하여 다른 간행물이나 앨범, 포스터 등을 그렸어요. 올해는 2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4컷 만화로 담았고, ‘나 잘 살고 있는 건가?’하는 물음에 대해 어른이 된 저의 진솔한 생각을 기록했어요. 『자토의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는 제목 그대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책이에요. 제가 미술학원을 딱 한 달 다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썼어요. 기초부터 다양한 표현 방법, 굿즈 만들기까지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답니다.



자토 작가의 책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삶

첫 책 『오늘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를 펴내고 바로 차기작 제의가 들어왔어요. 한 책이 끝나면 또 다른 제의가 들어왔죠. 일을 끝내자마자 다시 일하기를 반복하니까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야 뭔가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 프리랜서의 삶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워요. 일을 하면서도 ‘다음엔 어떤 거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쉴 때도 뭐든 해야 할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주변 작가들을 봐도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취미일 때와는 다르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공감과 호감을 사야 하는 부담감도 들어요. 더 잘 쓰고 잘 그려야 한다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그림이 안 그려지기도 했어요.

저번 달에 진행한 북토크에서 함께 출연하신 뮤지션 분과 이런 고민을 나누었는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이때까지 그저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저에 대한 기대가 커진 거 같아요. 이 시점을 현명하게 극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업 작가로 살아남기



자토 작가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4컷 만화.
(출처: Instagram @jato_illust)

지난 5년 동안은 거의 매일 하루에 7-8시간씩 일했어요. 8시간을 꼬박 일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시간보다 분량이에요. 정해놓은 분량은 그날 꼭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집에 오자마자 숙제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라 마감에 있으면 못 참아요. 마감에 늦는 작가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빨리 마무리해서 빨리 확인받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편집자에게 봐달라고 재촉하는 편이에요. 이런 성격이 프리랜서 생활에는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니까요. 자칫하면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 번은 말릴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되면 질리는 경우도 많고, 프리랜서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안고 가야 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언젠간 빛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기약 없는 시간을 혼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딱 한 번만 말릴 거예요.

작가로 전업을 생각한다면, SNS를 잘 활용해야 해요. 옛날에는 작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출판사에 보내거나,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작품을 올렸는데, 요즘은 클라이언트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연락을 주세요. 인스타그램은 '일상툰'을 올리면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그릴 때는 잘 그리는 것보다 보기 쉽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공군과의 인연

2018년 2월 어느 날,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당시 홍보과 미디어영상팀) 박지완 대위님이셨는데, 저에게 공군지 뒤표지 일러스트를 제안하셨어요. 조금 놀라기도 했고 '내 그림을 보고 전화하신 게 맞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고민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육군 간부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특히 더 군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일러스트를 맡게 되어 기쁩습니다.

처음 공군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제가 평소에 그리던 것과 소재가 달라서 어려웠어요. 저는 주로 일상이나 자전적인 내용을 그려왔는데, 공군의 전투기나 유니폼을 그리려다 보니 생소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공군지 담당자분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러스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도전적인 일이었던 만큼 지금은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림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주제로 일러스트를 몇 번 그렸는데, 참고 사진이나 영상을 조사할 때마다 직접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블랙이글스를 직접 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설레고 멋진 거 같아요. 또 바다에서 구조훈련과 생환훈련하는 그림도 그렸는데, 실제로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올 거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참관하고 공군의 멋진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가장 어려웠던 그림은 ‘공군과 VR’이었어요. 뭘 그릴지 모르겠어서 막막했거든요. 뒷면을 가득 채워서 그렸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자토 작가가 가장 어렵다고 꼽은 2019년 8월호 일러스트. 왼쪽은 당시 공군지담당의 요청사항이며 오른쪽은 완성본이다.

자토에게 공군이란

제 마음속으로는 무척 친근함을 느끼고 있지만 친구는 아닌, 마치 재능이 가득한 연예인들 같아요. 제 그림 속에서는 귀엽지만, 엄중한 임무를 멋지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와는 다른 존재들 같기도 해요. 어디 가서 누가 ‘무슨 작업해?’라고 물어볼 때 ‘공군 일러스트 그러’라고 하면 다들 ‘오’하는 느낌이 있어요. 전 매달 팬아트를 그리는 팬의 기분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내년에는 5년 동안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저의 생각을 담은 만화를 그리려고 해요. 그 내용으로 다섯 번째 책도 내고 싶어요. 아마도 또 그림 에세이 책이 될 거 같아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면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 밖에 ‘꼭 뭔가 이뤄야지’하는 꿈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평생 그림을 그리며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거 같아요. 먼 미래에 ‘그림을 그리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AF





공군 X 자토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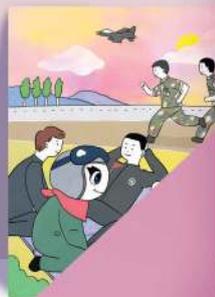
스마트폰 배경화면 무료 배포



올 한해 그려진 일러스트 12개를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2월, 5월, 6월, 7월 일러스트는 별도 제작)

공군 공감 블로그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군 공감 블로그 주소
afplay.kr



우 리 부 대 는



기상을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공군기상단

하늘길을 여는 부대. 24시간 365일 언제나 깨어있는 천기의 관측자들이 있다. 탁월한 전문성, 팀워크와 자부심으로 하늘의 경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항공우주군의 길잡이.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전군 유일의 기상 전문부대, 공군기상단을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노란색 별: 우주 진출 및 항공작전의 길라잡이 역할
- 독수리: 힘찬 날개짓으로 비상하는 용맹한 공군
- 원형 테두리: 부대 장병의 인화단결
- 기상특기마크: 완벽한 기상업무 수행의지
- 지구본: 지구 전역에 대한 기상지원

부 대 연 혁

- '50. 7. 27. 공군본부 기상대 창설
- '51. 10. 20. 제50기상대로 개칭
- '55. 10. 15. 제7항로보안단으로 예속 개편
- '61. 9. 30. 제7항로보안단 제73기상전대 창설
- '69. 3. 3. 한국군 독자적 기상통신망 운영체계 구축
- '75. 3. 1. 공군본부 직할 제73기상전대로 독립
- '90. 4.~10. 대형컴퓨터 도입 및 항공기상관측시스템 (AMOS) 설치
- '07. 1. 1. 한·미 간 기상예보 임무전환 (한반도 전구 기상예보권 환수)
- '09. 8. 31.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도입
- '12. 1. 2. 공군본부 직할 공군기상단 승격
- '13. 9. 27. 제1회 한·미 국방기상 발전 심포지엄
- '18. 1. 2. 중앙기상부 우주기상팀 신설



공군기상단 중앙기상부 예보상황실



1950년 10월 공군본부 기상대 앞에 선 기상요원들

1949년, 항공기지사령부 기상반으로 시작

기상단의 토대가 된 항공기지사령부 기상반은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하면서 김포 비행장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병력은 20여 명에 불과하였고, 장비 역시 일본군이 남기고 간 낡은 기구 몇 개뿐이었다. 6·25전쟁 발발 후 김포에서 대전을 거쳐 대구로 내려간 기상반은 7월 27일 공군본부 기상대로 개편되었다. 8월 말 다섯 명의 기상요원들이 김해기지로 파견되어 마산 전투, 하동 전투의 항공작전에 참여하였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우리 손으로 우리의 항공작전에 대한 기상지원을 시작하였다.



기상장비 정비기술 경연대회 실기 평가 참가중인 기상장비정비사



1969년 설치된 기상위성추적소와 전력화 예정인 국지기상 관측 드론 시연기

Third Eye Project - 진화하는 세 번째 눈

1960년대부터 기상단은 인간의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공간을 관측하기 위한 세 번째 눈을 찾아 나섰다. 인공위성에서 얻은 기상 자료를 획득하는 인공위성수신소 설치 사업 ‘Third Eye Project’가 1969년 완료되면서 단면적인 기상예보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공간개념의 기상예보가 가능해졌다. 더욱 확고한 기상지원을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슈퍼컴퓨팅과 빅데이터, AI를 융합한 초단기 예·경보체계를 구축하고, 국지기상 관측 드론, 전리층 레이더, 전파망원경 등으로 세밀한 지역기상에서부터 하늘 너머의 우주기상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높은 하늘 지키는 영원한 동반자

6·25전쟁 이전부터 기상지원 합동근무를 실시하였던 한·미 기상요원들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인천상륙작전에서, 치열한 고지전에서 승리로 가는 하늘길을 함께 열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주월 한국공군지원단 기상요원들은 파월 한국군 주둔 지역의 미군 항공작전에 대한 기상지원을 제공하였고, 하늘의 혈맹은 서로가 든든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07년 한반도 전구 기상예보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한 이후에도 한·미 기상조직은 기상지원 합동근무, 국방기상 심포지엄, 동맹 강화행사, 상호 교류 방문 등 기상분야의 항구적인 협력관계를 수호한다.



2019년 네브라스카 미 557기상단을 친선 방문한 기상요원들



기상관측장비를 점검하는 기상장비정비사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국민과 국군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상요원들이 있었다. 높은 산과 외딴 섬, 동아프리카와 알래스카, 주요 국가행사와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무중단 적시적 기상지원으로 국민과 국군의 부름에 응답하였다. UN 참전용사 마스크 전달과 국군장병 유해송환 시 기상지원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귀향을 같이하였다. 전 세계를 무대로 넓혀나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에 발맞추어, 기상단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 평화 유지에 헌신할 것이다.



공군기상단 중앙기상부 우주기상팀 우주기상지원병

우리는 우주로 간다

국군의 전장이 우주 및 고고도 영역으로 확대되고 우주기상 정보 요구가 증대하면서 우주기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2018년 1월 창설된 우주기상팀은 태양의 플레어 발생과 코로나 질량방출, 코로나 홀, 태양 고에너지 입자 정보 등을 감시하며 레이더, 위성통신, GPS 간섭 및 고가치 전략자산의 피해에 대비한 우주기상 예보를 생산한다. 2025년까지 우주기상대 창설, 우주기상 예측 모델 및 분석체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기상단은 우주 진출의 선두에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고 있다.



「멋진 공군이 말한다」 기상단 토론배틀 중

다음 70년을 준비하는 사람들

지난 70년간 기상단은 무한한 열정과 헌신으로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가며 정확한 기상지원과 기상기술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기상단은 조직문화 개선과 인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기상예보기술 및 정비기술 개발, 대내·외 학술연구 활동 등 활발한 기술개발·연구 활동과 더불어, 존중과 배려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기술 다변화 시대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미래조직을 꿈꾼다. **AF**



사기충천한 최정예 전투비행

공군 군악대 순회공연

11월 10일(화) 제18전투비행단에서 공군 군악대 순회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순회공연은 10월 21일(수) 제19전투비행단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19일(목) 관제사령부 여하
8546부대까지 총 20개 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극복과 정병 사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 참모총장이 美 우주군참모총장과 양자대담을 하고 있다.

美 우주군참모총장 및 공군지휘관 교류행사

참모총장은 11월 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美 우주군 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美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군사 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 참모총장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美 태평양공군사령관에게 훈장증(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하고 있다.

역대 참모총장 정책자문 행사



참모총장은 11월 4일(수) 공군호텔에서 김두만 전 총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역대 참모총장님들을 모시고, 38대 참모총장 복무 중점을 설명하고 공군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제39정찰비행단 창설식 주관



참모총장은 11월 3일(화) 제39정찰비행단 창설식을 주관했습니다. 총장은 그동안 부대 창설을 위해 헌신 진력한 정찰비행단 장병 및 군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강한 비행단 육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

기지 내 연극 공연 실시

제1전투비행단은 11월 9일(월) 기지 내 강당에서 연극 '너에게로 또다시'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장병 및 군무원들의 사기 증진과 문화활동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제3훈련비행단

2020년 피해복구 능력평가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4일(수) 비행기지 활주로 피해 복구 능력 및 기지 생존성 향상을 위한 기지 작전지원 복구능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제11전투비행단

2020년 비행단 전투대세훈련(ORE)

제11전투비행단은 11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20년 비행단 전투대세훈련(ORE)'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전시 행동 절차 숙달 및 작전사 주관 지휘소연습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

115대대 11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제16전투비행단 115전투비행대대는 11월 10일(화) 11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무사고 비행기록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10일까지 약 26년 1개월에 걸쳐 수립된 것입니다.



제18전투비행단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

제18전투비행단은 11월 9일(월) 제58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방구조중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재사진 전시회와 화재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제38전투비행전대

무장장착 경연대회 개최

제38전투비행전대는 11월 13일(금), '20년 항공기정비 중대 무장장착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장정비사 전문성 향상 및 정비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AF](#)

시인의 책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

엄마 이거 보세요

지난해 가을이던가?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해 수시로 휘청거렸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헛헛과 쓸쓸로 말미암아 한동안 일상이 무기력과 멍멍을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 저 너머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곤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눈앞의 일처럼 생생해 기억 속 인물의 이름 석 자를 인물검색란에 입력했다. 마치 만난 지 오래인 지인의 근황을 살피기라도 하려는 듯.

박완서

유작을 읽고 자신의 SNS에 서평을 남긴 독자들의 포스팅 몇 개를 연달아 읽다가 표지 전체를 선생의 흑백 사진으로 디자인한 낯선 책을 발견했다. 특유의 수줍은 듯, 겸연쩍은 듯 싶은 표정에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처럼 다감했고, 소설가 박완서 대담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로 왔다. 5주기 헌정 의미를 담아 후배 문인들과 나눈 대담 및 인터뷰를 호원숙 씨가 엮었다. ‘호원숙?’, 궁금증은 곧 풀렸다. 선생의 만딸이란다.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녀 역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담집도 그렇지만 선생의 여식이 “엄마 박완서를 그리워하며 쓴” 산문집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도 뜻밖의 수확이다. 두 권을 동시에 주문했다. 각각 결이 다를 것이므로.

선생과 중국 여행에 동행했던 적이 있다. 컨디션 난조였으나 처방약만 믿고 따라나섰다가 마지막 날까지 호전되지 않아 고생했다. 오죽하면 지연되는 귀국 여객기를 더는 서서 기다릴 수 없어 캐리어를 가로로 눕혀놓고 무너지듯 털썩 앉았을까. 이를 목격한 선생이 당신의 손수건을 건네며 깔고 앉으라 하셨고, 화들짝 놀라 사양하자 “손수건이라도 깔아야 한기가 덜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손수 펼쳐주셨더랬다. 그 이전과 이후 구리시 아치울 자택에 초대받아 몇 차례 와인이 곁들여진 선생의 생일밤을 대접받았고, 몇 권의 친필 사인본을 선물받은 적도 있

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내겐 2007년 1월의 그 장면이 어떤 순간보다 깊이 각인돼 있다. 세상 어떤 무지막지한 풍파도 막아줄 것 같은 어떤 상징으로 말이다.

늦깎이로 데뷔해 다작을 집필하면서도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승희(시인)가 문자 ‘문학이 뭐 별건가요?’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는 일하는 동안 정신이 맑아져요. 집안일을 안 하고 엮어져서 글만 쓴다는 것은 나 자신이 타락해지는 것 같고 어쩐지 퇴폐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에게 허용 안 합니다”(『우리가…』 16쪽) 답한다. 이렇듯 관념적 허용을 경계하는 동시에 작가와 생활인으로서의 균형감을 유지하며 써낸 작품으로 선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섰다.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닻”으로 여겨 투덜대지 않고 오히려 창작열의 동력으로 삼은 결과다. 선생 스스로 “5백년을 사는 것 같다” 말했다를 만큼 격동기를 살아내면서 “여러 정황을 증언하듯이 그려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은 개인사와 문학사를 넘어 조선희(소설가)의 말처럼 사회사적으로나 문화사적 가치를 성취했다.

신형철(문학평론가)은 선생의 문학을 “장악(掌握)의 문학이다.”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그 손바닥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문학이 된”다는 뜻이니 작가로선 최상의 찬사 아닐까?

“엄마처럼 완벽하고 쫘쫘하지는 않지만 내 문체를 갖게 된”, 작가는 기억에서 수시로 엄마를 소환해 독자에게 들려준다. “염천이었다. 애 저것 좀 봐주고 나가렴. 앞마당으로 내려서려는데 상사화가 올라와 흐드러져 있다.”, “허둥지둥 나가는 나를 잠시 불러 세워 꽃을 보게 한”(『엄마는…』 83쪽) 엄마, “쫓겨나지 않았으면서도 쫓겨난 아이” 같던 어린 시절의 심정과 “네가 그냥 여기서 살아

라. (중략), 기념관이나 문학관을 만들지 말고 그냥 살아가.”(『엄마는…』 187쪽)던 생전의 유지를 받들어 엄마 집에 들어와 정원을 돌보며 담담함과 사무친 그리움의 경계에서 글을 쓴다. 언젠가 엄마가 자신을 불러 세워놓고 말했듯 6월의 무더위 속에 찾아온 글라디올러스 꽃대를 가리키며 “엄마 이거 보세요.”(『엄마는…』 107쪽) 말하기도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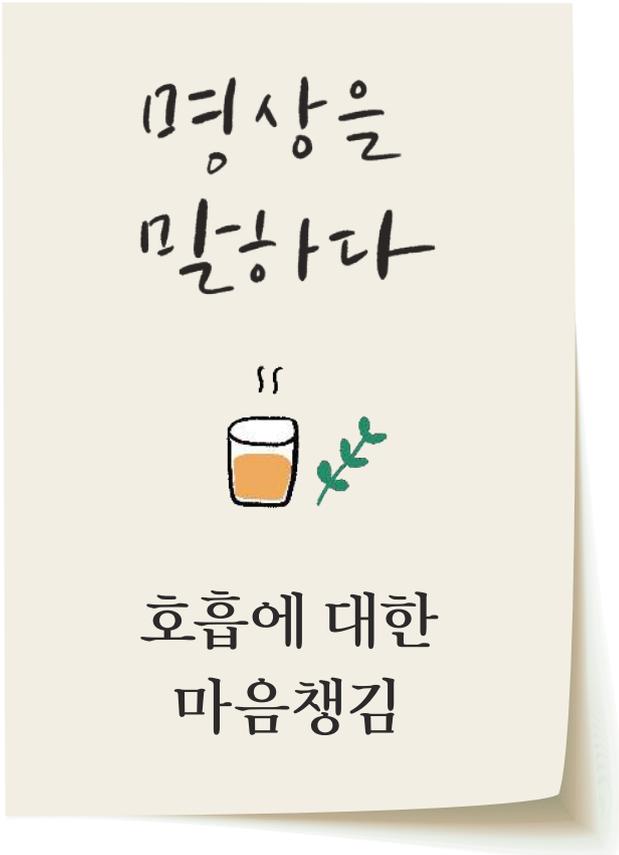
선생이 펼쳐준 손수건 한 장의 배려를 떠올리며 이 글을 쓴다. 어느 한 권을 결정지을 수 없어 두 권을 나란히 놓기도, 위아래로 포개기도 하며 쓴다. 내 경우엔 손수건이지만 이 두 권의 책엔 선생이 남긴 위안의 선물이 가득하다.

언제 끝날지 모를 상심의 시절을 건너는 동안, 영혼의 신약으로 곁에 두어도 좋을. **AF**



글쓴이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와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다. 제주도 책방카페 <시인의 집> 대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지요.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징표’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난 직후 첫 번째 호흡이 있었을 것이고, 죽기 직전 마지막 호흡이 있게 됩니다. 생명 현상들 가운데 호흡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호흡은 계속 이어집니다. 반대로 숨을 멈추고자 하면 멈출 수 있고, 숨을 깊게 쉬고자 하면 깊이 쉴 수 있지요. 다시 말해 호흡은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긴장될 때에는 숨이 가빠지는 반면 마음이 안정될 때에는 숨이 느리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요. 거꾸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통해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의 상태를 알려 줍니다.”

호흡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든 명상 방법들은 호흡을 중요한 명상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더구나 호흡은 무색무취해서 욕심이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이,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사는 내내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명상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이 숨을 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에서도 호흡은 가장 중요한 명상 대상입니다. 살아 있다는 증거이자 마음으로 연결해 주는 통로인 호흡을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마음챙김 명상에서 호흡을 알아차림에 있어서는 여타 명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명

상에서는 호흡을 깊게 또는 얇게, 길게 또는 짧게 등으로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주어 내가 원하는 상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음챙김 명상은 호흡을 통제하지 않고,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호흡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숨을 쉬지 않나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쉽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숨이 자신의 숨을 쉬도록 내버려 두게 나는 그 숨결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의 요점입니다.

“숨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잠시 해 본 다음 이야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의자나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심호흡을 세 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합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서 명상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내려 놓고 또 내려 놓습니다.
- ② 나의 주의를 가만히 콧구멍 입구로 가져옵니다. 그곳에서 내 콧구멍 입구로 들고 나는 숨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숨이 숨을 쉽니다. 나는 관찰자로서 콧구멍으로 들고 나는 공기의 결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 ③ 숨이 들어 올 때 ‘들숨’,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뒤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있고, 짧으면 짧은지 알아차립니다. 숨의 길이에 따라 마음속으로 ‘길고’, ‘짧고’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④ 이번에는 들숨과 날숨이 습한지, 건조한지를 알아차려 보고, 시원한지, 더운지를 알아차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콧구멍으로 들고 나는 공기의 결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저절로 숨이 안정되어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⑤ 이렇게 최소한 10분 이상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을 이어가다가 충분히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느껴지면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손주가 수영이 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두고 주무세요? 밖에 두고 주무세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안에 두고 자려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이불 밖에 두고 자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밤새 수염을 이불 안에 두었다가 밖에 두었다가 하면서 잠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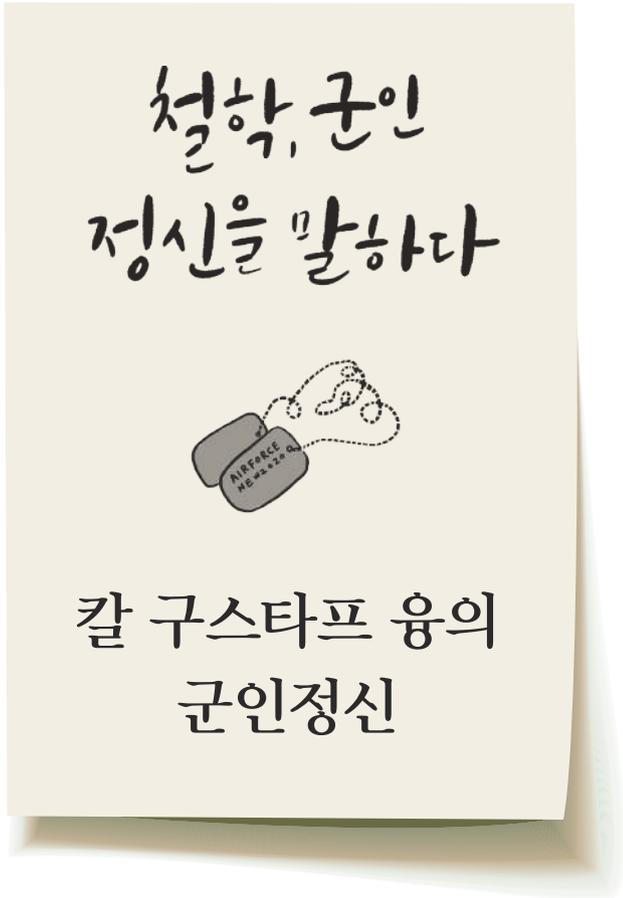
평소에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지만, 막상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호흡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명상을 하는 우리는 포용적인 자세로 나의 호흡을 이해함으로써 몸과 마음 즉, 나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억지로 삶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결국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내 안의 그림자부터 보살피라

컨디션 블랙

‘컨디션 블랙(Condition Black)’이라는 상황이 있다. 두뇌가 멈춰버린 듯 정신이 까맣게 꺼져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갑자기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 내 옆에서 갑자기 불길이가 격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면? 혼비백산하여 정신 줄을 놓고 달아나려 할 터다. 하지만 훈련받은 전사들은 다르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살벌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거듭된 훈련으로 공포를 밀쳐낼 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기록에는, 총탄에 머리가 날아간 병사가 돌격 명령에 참호를 박차고 뛰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렇듯 전사들은 반복된 훈련으로 만들어진 ‘제2의 본능’으로 두려움이라는 타고난 본능을 이겨낸다.

전사의 삶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강인한 전사를 만드는 반복 훈련은 되레 마음의 병을 키우곤 한다. 군인은 훈련소에서 군복을 입는 첫 순간부터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교육을 받는다. “명령에 복종하라.”, “지위와 역할, 계급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라.” 군인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무의 연속이다. 이렇듯 순명(順命)이 몸에 밴 생활을 통해 군인은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해내는 강철의 전사로 거듭난다.

그러나 전사로 살기란 녹록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개성과 영혼이 있다. 욕망을 누르고 조직의 뜻을 따르기가 어디 쉽던가. 자신이 납득하지 못 할 일을 ‘명령’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술하게 벌어질 터다. 상급자의 처지도 별다르지 않다. 자기 자신조차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조치를 부하들에게 지시해야 하는 상황을 적잖게 겪어야 한다.

이럴수록 군 생활에 대한 회의는 쌓여간다. 하라고 한 일을 못했나며 닳달하는 상관의 목소리, 자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감추지 못하는 하급자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은 답답하다. 군인이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병들어 간다. 조직안의 불만과 갈등도 점점 쌓여갈 터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의 가슴에 쌓인 억한 심정과 서로 간의 반목은 그 어떤 강력한 적보다 조직을 손쉽게 무너뜨린다. 그러나 명령에 복종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누르는 것은 군인의 숙명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독이며 상명하복에서 생기는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페르소나는 내가 아니다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이 물음에 답을 주는 사상가다. 그는 ‘페르소나(Persona)’를 자신으로 여기지 말라고 힘주어 말한다.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라는 뜻이다. 융은 이를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맡게 되는 역할에 빗대어 설명한다. 부대에서는 계급과 지위에 걸맞은 페르소나를 쓰고 임무를 수행한다. 융은 페르소나를 ‘나’라고 착각할 때 마음이 병든다고 설명한다. 부대에서 내키지 않는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냉정하게 자신과 페르소나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이는 내 감정이나 생각과 상관없는 문제다. 내가 쓰고 있는 ‘상급자’라는 페르소나가 해야 하는 역할일 뿐이다. 군복을 입고 있는 ‘나’는 페르소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 된다.

하급자들이 나에게 불평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이는 내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일 뿐,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나는 직책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업무 시간이 끝나면 쓰고 있던 페르소나를 벗어라. 그리고 다른 페르소나를 쓰고 나의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 부대에서 엄한 지휘관의 페르소나를 하고 있다 해서, 집에서 자녀에까지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집에서는 자상한 엄마의 역할을, 부대에서는 깐깐한 상관의 임무를 수행해도 모순될 것은 전혀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페르소나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이다. 전사는 계급이 높아지고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질수록, ‘군인’이라는 페르소나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리기 쉽다. 언뜻 보면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진짜 군인인 듯이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선진 군대에서는 오히려 이를 좋게 여기지 않는다.

내 안의 그림자부터 보듬어라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융의 말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내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가 강하고 영향력이 셀수록, 이를 수행해야 하는 내 마음은 더 힘들다. 휴식 없이 계속 달릴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페르소나가 크고 무겁고 버거울수록, 이를 내려놓았을 때는 지친 자신을 보듬고 상처받은 곳곳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페르소나에 짓눌려 나의 인격은 망가져 버릴 것이다. 융은 우리에게 자신 안의 그림자를 돌보라고 끊임없이 충고한다. 전사인 그대에게는 힐링을 주는 취미가 있는가?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풀어줄 친구가 있는가? 군문(軍門)을 벗어나서도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장소와 역할이 있는가? 이런 물음에 고개가 끄덕여질 때, 그대는 진정한 강철의 전사다. 적의 무기만 위협은 아니다. 진정한 전투 대비태세는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을 보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예나 지금이나 상관생도 교육에서 인문학과 음악과 미술, 체육을 비롯한 교양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를 곱씹어보기 바란다. **AF**



글쓴이

철학박사.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책을 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인문학자이다.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다시, 캠핑의 시대

캠핑은 오래된 낭만이다. 유영하는 별들 아래 텐트를 세우고 불 곁에 모여 앉아 소중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풍경은 숭고한 의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거주지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 이상을 머무는 것. 이것이 캠핑의 정의다. 이 문장 안에는 자연이 품은 치유의 힘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이 캠핑을 여가생활로 즐긴 지는 꽤 오래다. 세계 최초의 유료 캠핑장은 1894년 유럽의 아일 오브 맨(Isle of Man) 섬에 문을 열었고, 이후 현대 캠핑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인 토마스 히람 홀딩(Thomas Hiram Holding)을 주축으로 대중문화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캠핑 문화가 있었지만 20~40대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여가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캠핑 문화와 장비, 스타일,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캠핑을 즐기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캠핑의 부활

올해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는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통제되고 격리된 삶은 해외여행은 물론 외식과 쇼핑, 실내 스포츠, 공연 관람 같은 즐거움을 포기하게 했고 사람들은 자연과 캠핑으로 시선을 돌렸다. 캠핑을 선택하는 이유는 몇 가지다. 첫 번째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늘과 숲과 대지가 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다. '자연은 언제나 영혼의 색을 입는다'는 미국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말처럼 자연이 보여주는 생동감과 평온함, 인생의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느낌은 자연을 찾게 만드는 큰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밀집된 곳을 벗어나 탁 트인 공간에서 적은 인원



Photo by Denny Müller on Unsplash

이 모여 즐기는 캠핑 환경의 안전함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광지나 여행지 대신 산과 들, 자연을 찾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흐름 덕분에 2020년 여행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캠핑 관련 산업은 부드러운 성장 곡선을 그렸고, 2020년 캠핑 인구가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도 이어졌다. 세 번째는 캠핑이 지닌 아날로그한 정서를 이유로 든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세상과 만나는 온택트,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패션 위크나 아트 페어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오프라인 규모를 줄이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사람과 함께하고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캠핑의 의미는 더 깊게 다가온다.

2021년, 캠핑 즐기기

캠핑은 적절한 장비를 갖춘다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이다. 특히 겨울 캠핑은 잎을 모두 떨구고 속내를 드러낸 숲의 풍경과 하얗게 쌓인 눈의 경이, 온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캠핑은 크게 오토캠핑, 백패킹으로 나누는데 요즘은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이 가장 큰 인기다. 지난해부터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장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텐트 대신 SUV 같은 차량을 활용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커져서다. 캠핑의 종류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 호텔 같은 시설을 갖춘 글램핑, 캠핑 전용으로 탄생한 트레일러나 캐러밴, 텐트 없이 나무 사이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해먹 캠핑이나 자연인처럼 살아보는 부시크래프트도 있다. 또 캠핑은 야외 활동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어 서핑, 낚시, 트레킹, 사이클링, 카야킹 등 다른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때도 유용하다. 넓게 보면 자연 속에 머물면서 휴식과 여유를 찾는 캠핑의 본질은 하나고 방법은 다양하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2021년 어느 따스한 봄날에 캠핑을 시작하게 된다면 캠퍼들이 사랑하는 ‘불멍’의 행복은 놓치지 말 것. 화롯대에 불을 피우고 가만히 불꽃을 바라보는 것인데 마치 명상을 하듯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야외 활동의 필수 원칙인 LNT(Leave No Trace - 흔적 남기지 않기)를 가슴에 새길 것. 인류와 자연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약속이다. AF



글쓴이

아웃도어 패션&라이프스타일 잡지 <고아웃 코리아> 전 편집장. 20년간의 에디터 경력을 바탕으로 매거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필을 쓰며 어린이 영어지도사로 활동 중이다. 문밖의 삶과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많으며 백석의 시를 자주 읽는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상병 한상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오늘 밤에도 별을 헤며

그 길고 긴 일병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2020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전입 오고서 새벽에 일어나 근무지를 향해 갈 때마다 느껴지는 피곤함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초소에 나와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을 볼 때마다 별의 수만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학을 다닐 때 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한 미안함, 대학교에서의 동기들과의 여러 가지 추억, 아직 먼 미래로 느껴지지만 전역 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저를 생각하며 저 하늘에 떠있는 별에 오늘도 저의 안녕을 보내봅니다.

흔히 군대에서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지만, 제가 속한 군사경찰대대는 특히나 그 시간이 많아 밤마다 별을 헤며 사색에 빠지기도, 사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책을 읽기도,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며 저 하늘에 떠있는 별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년간 제지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셨죠. 잠을 자다가 별떡 일어나시며 시간을 무의식 중으로 물어보시는게, 그 어린 나이에는 참 귀찮았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자식 용돈을 챙겨 주셨다며 12시간을 그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셨죠. 나이를 먹고 저도 군대에서 췌바퀴 같은 교대근무를 해보니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기쁜 일에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는 같이 슬퍼해주는 아버지가 있기에, 군 생활중 가장 힘들다는 일병 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이제 제 가슴에는 빈 오버로크 자국이 거의 없는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비추는 어머니 같은 달과 그런 달과 함께 만천하를 비추는 별인 아버지가 있기에 군생활이 외롭지 않고, 상병 한상민으로까지 살아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새벽의 여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구름에서 올라온 여명이 추운 새벽에 온기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한번 힘차게 또다시 앞으로 영원한 광명이 되어 미래의 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중령 조호성(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

『백년의 마라톤』

- 백년의 기다림, 대한민국 공군의 ‘살수간(殺手鐮)’, ‘퀀텀 5.0’

『백년의 마라톤』이라는 제목은 중국 건국 1949년부터 2049년까지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시진핑 등 중국 지도자들이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위해 100년의 마라톤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동안 중국이 취해온 대외전략은 자신이 약할 때는 허리를 굽히고 숙여 때를 기다리고,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압하며, 어느 날 강자가 약세를 보이면 가차 없이 제거하는 손자병법의 인(忍), 세(勢), 패(霸) 전략과 일맥상통하는데, 저자는 서구열강에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세를 가늠하며 치욕을 갚을 최적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모든 세상에 경고하고 있다. 저자의 여러 경고 중에서 충격처럼 다가왔던 경고가 바로 ‘살수간(殺手鐮)’이다. ‘살수간’은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영웅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적의 칼이나 두개골을 두 동강 내 버릴 수 있는 비밀무기를 말하는데, 이 ‘살수간’이야말로 『백년의 마라톤』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군사력 확대를 꾀하지 않고, 장거리 폭격기, 대규모 지상군,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군사력 수단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은 군사력 투사능력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대신 첨단무기에 대한 지출을 지난 10년 동안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비지출에 관한 연간 보고서는 중국 국방예산이 중국이 주장하는 금액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내·외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 질서를 뒤집기 위한 중국의 대장정은

지금 우리 공군이 안팎의 변화요구를 기민하게 수용하고 미래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퀀텀 5.0과 맞닿아 있다. 현재 우리 공군이 처한 현실은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과 전투수행개념이 진화된 미래 안보환경에서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공군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란 커다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구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작금의 현실은 『백년의 마라톤』처럼 ‘살수간’의 개념을 깨닫고 퀀텀 5.0과 같은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살수간’을 찾아 ‘선택’과 ‘집중’이라는 일관된 노력을 해야 할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년의 마라톤』이라는 대전략서를 통해 중국처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가 대기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국가를 지탱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미래 공군력 발전방향을 제시한 퀀텀 5.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군인 한명 한명 각자가 인식있는 공군인으로서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일 또한 중요할 것이다. AF



『백년의 마라톤』
마이클 필스버리 지음
영림카디널 펴냄

생각하는 그림

글 | 조무형 (예)중위(학124기)

그림 | 강은정 작가

내 인생의 개척자는 나



11세의 나이에 국제무대에 데뷔한 후 신동(神童)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의 반열에 오른 장한나 씨는 2007년부터 첼로 활을 내려놓고 지휘자로 새로운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에 오른 첼리스트의 일회성 외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동안 쌓아 온 명성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경력을 새로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를 찾는 대신 우리나라의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연습하고 무대를 올리면서 그녀의 노력과 진정성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첼리스트’보다 ‘지휘자’라는 호칭이 더 어울릴 정도로 그녀는 주목받는 젊은 마에스트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장한나 씨는 자신이 이끄는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귀국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들이 다 국제 콩쿠르에 나가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남들이 다 입상하니까 나도 입상을 해야만 되겠구나, 등등 남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음악을 시작했는지, 내가 정말로 연주하고 싶은 곡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개척자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 소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나를 부자연스럽게 끼워맞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와 엄격한 기준은 나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에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이나 가벼운 말들에 휘둘리고 남들의 인정과 실망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굳게 다잡았던 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장한나 씨의 이 인터뷰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도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세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좋아하는 일을 향해 독심 있게 나아가는 그녀의 당당한 행보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연설가인 레스 브라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반응은 내 삶의 길에 윤회유가 될 수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로를 따라가는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 역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일과 삶에 대해 충분히 탐구하고 사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주체성을 단단하게 세우고, 그 위에서 부단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내 삶의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공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AF



※ 이번 호는 공군 교재개발담당으로서 2013년까지 <공군인의 생각하는 아침>을 진행하고 이후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조무형 예비역 중위가 작성했습니다.

기준의 기준

글 | 중위 윤기준(정훈과)

'선표'

'벌써 한 해가 갔다.' '벌써, 한 해가, 갔다.' 분명 똑같은 문장이지만 읽는 속도가 다르다. 바로 선표 때문이다. '선표'라는 말뜻 그대로 선표는 독자를 쉬게 하고 자연스럽게 문장 전체 속도가 느려진다. 그런데 사실 선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사과, 당근, 수박, 참외, 멜론' 이렇게 항목을 열거하고 구분 지을 때 쓰이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때는 선표가 쓰였음에도 오히려 리듬감이 생겨 저절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쉬' 또는 '휴식'이라는 게 그렇다.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한다. 쉬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월화수목금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쉬는 주말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휴식은 달콤하고 달콤한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른다. 아마 아쉬워서 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휴식은 다시 일상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일상에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주말을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구분 짓고 한 달을 리듬감 있게 생활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다.

반대로 휴식이 시간을 더 느리게 만들기도 한다.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있지만, 중간중간 적절히 쉬어주면 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느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다. 쉬지 않으면 세상을 관찰할 시간도 없고 세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지도 못해 결국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 바쁘면 세상에 무관심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서 시간에 무신경해지는 것이다. 쉬지도 않고 세상을 관찰하지도 않으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더 빠르게 흘러간다.

시간이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중요한 건 삶을 통해 삶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된다면 휴가를 떠나 활기를 되찾고, 너무 바쁘다면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다. 이때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영화 <위플래쉬>에서 지휘자 플레처가 "My tempo!"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축구 경기에서 공수전환 속도를 잘 조절하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음악과 축구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듯이, 휴식을 통해 일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올해는 일 년을 통째로 코로나한테 뺏겼다'고 말한다. 스스로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맞춰 생활이 이리저리 바뀌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휴가를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사람은 올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올해가 너무 느리게 지나갔다고 말한다. 'My tempo'를 잃은 것이다. 이처럼 올해는 자기 의지대로 선표를 찍지 못해 아쉬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진 말자.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선표는 마침표가 아니다. 언제나 다시 찍을 수 있다. 내년에는 모두가 자기만의 '선표'로 온전한 삶을 영위하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 선표와 함께 써내려갈 여러분의 모든 아름다운 문장들을 응원한다. AF

월간 『공군』

송년 이벤트

접수부문 1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혹은 표지)와 구독 소감을 보내주세요.

접수부문 2

2021년, 월간 『공군』 지면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 코너, 공군인(예비역 포함)을 추천해주세요.

내용의 차별성을 위해 공백 포함 **250자 이상** 보내주세요.
선정 인원은 부문별 **10명**이며, **선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월간 『공군』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필터 마스크 / 다용도 앞치마 / 아로마비누
푸짐한 선물이 기다립니다!

접수 기간

~ 2020. 12. 20.(일)

접수 방법

포털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 공군' 검색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
(www.afzine.co.kr)
'독자 의견'을 통해 접수



안내사항

- 응모 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미기재, 오류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선정자는 개별 이메일 통보되며,
기간 내에 주소 미회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선정자 발표

12월 말 개별 이메일 통보
선정자 주소 회신 기간 : 통보일로부터 2주



마음의 소리

이춘성
bulspiz**@paran.com

11월호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조지훈 시인편' 잘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수많은 문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남김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쏟아부은 놀라운 결과를 공군지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장병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김형섭
skhs49**@korea.com

월간 『공군』을 구독한 지도 어느새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책장에 한권 한권 꽂히더니 이제는 한가득 채워져, 마음까지 풍요롭게 살찌는 기분입니다. 매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고문을 읽으며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페이지 수가 적어 아쉽기도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을 때가 많았었지요. 단순 알림지에 불과하다면 이런 감정은 없었을 테지만, 현대인의 휴머니티가 어우러진 공군지를 매달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남아가는 생명체이지만 늘 새롭고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덕에 활력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ni**@hanmail.net

월간 『공군』에서 늘 '소확행'을 얻는 구독자입니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지 어느덧 4년, 요즘 들어 군대와 관련된 꿈을 자주 꾸어 그 시절이 유난히 많이 생각납니다. 남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시절이라고 하지만 군대에서의 좋은 인연과 추억 덕분인지 저는 늘 그립습니다. 대한민국 블랙이글스팀과 함께 출장을 다니며 쌓았던 많은 추억들은 제 군 경험담으로 빠지질 않네요.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0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2021년에는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무쌍전(文武雙全)의 전투기 조종사 여러분, 그리고 변화무쌍한 하늘 앞에서도 당당하게 조국과 국민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공군 장병께 늘 감사하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매달 '소확행'을 선물해 주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0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편집실에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박란 소령(진) (공군지담당)

제가 만든 월간 『공군』 첫 호는 500호(2020년 2월호)였습니다. 특집호를 시작으로 매달 정신없이 마감을 끝내다 보니, 벌써 2020년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가는 공군인들의 모습은 잡지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지면과 취재 여건이지만 그들의 노력이 부족하나마 독자분들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끝으로 편집실에서 채우지 못한 귀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필진분들, 예비 공군인을 꿈꾸는 학생들부터, 90세를 바라보는 공군 예비역까지 공군지를 애독해 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군지는 만드는 이, 읽는 이를 연결해 주는 공군의 '보물창고'이자 '자부심'입니다.

김모아 주무관 (콘텐츠제작담당)

월간 『공군』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년 반의 세월이 지났네요. 공군지 코너 중 '내 옆의 공군인'을 맡아 매월 묵묵히 공군을 위해 살아가며, 공군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 어려워 현장 취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죠.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 대상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던 저로서는,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 와중에 수차례 질문지와 답변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인터뷰 진행에서도 친절히 응해주셨던 공군 가족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이 호전되는 그 날까지, 월간 『공군』과 함께하는 그 날까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늘 공군지팀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황현동 일병 (공군지 디자인담당)

월간 『공군』의 표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황현동 일병입니다. 올해 5월에 입대 후 공군지표지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호를 제작하다니, 공군지와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월간 『공군』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잡지의 얼굴인 표지가 공군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매월 심혈을 기울여 표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표지를 보고 공군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나,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을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2021년에도 좀 더 부담되어도 좋으니(?), 더 좋은 표지로 찾아뵙겠습니다.



5 1 0